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6월 20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하 수 과	담 당 자	• 하수시설팀장 • 담당자	박미자 김영은	☎440-3641 ☎440-364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최우수시설 선정
 - 한국환경공단, '23년도 악취기술진단 완료시설 164개 대상 운영관리 평가 -
 - 중구, 마추홀구 등 지역 하루 12만5천톤 처리 ... 안정운영과 악취저감 노력 인정받아 -

인천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하는 2023년도 악취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I그룹(하·폐수처리시설) 44개 시설 중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하수·폐수·분뇨·음식물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있다. 2023년도 악취기술진단이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악취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별 운영관리실태 평가하고, 최우수 시설로 선정된 환경기초시설에는 시상을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2023년도 악취기술진단이 완료된 공공환경시설은 총 164개소이며, 한국환경공단은 이 시설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운영관리 현황, 기술진단 이행분야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객

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중구·미추홀구·연수구 지역의 하루 12만 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악취저감 효과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이번 운영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 획득으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된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사인 인천환경공단과 시 공직자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악취저감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

